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0. 7.19(월)

보도자료	2010년 7월19일(월)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 강도현 과장(☎750-2130) 융합정책과 이상철 사무관(☎750-2134) yscheol@kcc.go.kr

「IPTV공부방」 각 지자체로 확산 ! 경기도 연내 620여개 개소

-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수원시
「평강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개소식 참석 및 격려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IPTV 3사가 협력하여 민간자율로 추진되던 IPTV공부방이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IPTV공부방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돌봄이 역할을 위해 '09년 2월부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IPTV 사업자가 지원해 온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에 이어 금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IPTV공부방 확대를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연내에 도내의 620여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우선 50여개를 개소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7월 하순 제주시에 첫번째 IPTV 공부방을 개소할 예정이다.

<IPTV공부방 현황('10. 6월말 기준)>

· 서울 16개, 부산 11개, 경기 31개, 충청 40개, 호남 14개 등 총112개(KoDiMA 사업)
· 이와 별도로 부산시 80개('10. 4월말), 부천시 45개('10. 6월말), 구리시 11개('10. 6월 중순), 남양주시 40개('10. 7월중), 전라남도 22개('10. 6월말) 등 각 지자체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개소하여 운영 중

특히, 7월 19일(월)에 열린 경기도의 IPTV 공부방 개소식에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하는 "평강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관희 목사)"에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이석채 (주)KT회장, 김원호 KoDiMA회장 등과 함께 IPTV공부방 개소를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여러 지자체로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IPTV공부방 역할〉

·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이 방과후에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영어·수학·과학 등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를 활용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

· 다큐멘터리, 안전교육, 자격증 취득,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공간 제공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10년 6월말 기준 전국 3,474개, 97,926명 이용)

한편 오늘 개소식 행사에서는 경기도와 KT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에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2,500개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WiFi : 무선랜)존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지자체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 IPTV사업자는 IPTV공부방의 전국적인 확산과 더불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소외 아동 ·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운영 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끝.